

## 미주, 모기페의 습격 뎅기열 3배 ‘비상사태’

- 미주 대륙에서 나온 뎅기열 감염자 수는 357만여 건
- 미국을 포함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, 페루, 파라과이 등 미주 대륙 전역에서 속출
- WHO는 이상 기온 현상과 집중호우, 일부 국가의 열악한 위생 상태를 최근 뎅기열 환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

### 감염 증상



발열, 두통, 안와통증, 근육통, 발진 등 때로는 뎅기출혈열이나 뎅기쇼크 증후군 같은 중증 뎅기 감염증이 발생하기도 함



심각한 출혈 또는 혈압 하강, 장기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사망률이 20%이름

\* 첫번째 감염과 다른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 감염증이 할 수 있음

### 감염 경로

#### 주로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류를 통해 전파



드물게, 혈액을 통한 전파 또는 수직감염이 일어날 수 있음



주로 발생지역 :  
동남아시아, 아프리카, 중앙 및  
남아메리카를 비롯한 열대지역  
및 아열대 지역

### 감염 예방



#### 여행 전

-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  
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:  
<http://www.해외감염병NOW.kr>
- 모기예방법을 숙지, 모기기피용품 상비약 준비  
**모기기피제, 모기장 밝은색 긴팔상의, 긴바지 준비**



#### 여행 중

- 모기가 많은 ‘풀숲’, ‘산속’ 등은 가급적 피함
- 외출시 밝은색 긴옷 착용, 3~4시간 간격으로 모기기피제 사용
-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, 냉방 잘되는 숙소에서 생활



#### 입국시

- 검역관리지역(56개국)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통해 건강상태 알리기
- 뎅기열 의심증상이 있을 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뎅기열 신속키트 검사 받기



#### 여행 후

-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 받기
- 귀국 후 헌혈 보류기간(4주)동안 헌혈 금지